

< 양식 2 : 작성서식 >

제 목	세종에는 서울 지하철보다 편리한 ‘바로타’가 있다네!!
-----	--------------------------------

친구여, 오랜만이야. 나는 그대가 걱정하는 것보다 세종에서 잘 지내고 있어. 헤어지기 전에 이야기 나눈 거 기억하나? 서울에서 누리던 편안함으로 더 많이 세종시가 불편하게 느껴질까 두렵다고 자네에게 말했었지. 알다시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하철을 이용했었어. 정확히 말하면 내가 10살 되던 해에 초록색 지하철 2호선이 개통했었지. 그 시절 학업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며 학교를 오가야 했었어. 그래서 ①정시 도착하는 지하철은 나의 필수 애마였다네. 그러다 20대가 되었을 때는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승객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②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도 했구. 30대 때는, 준비하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아침 저녁 지하철에서 ③무료로 동영상을 들을 수 있었지.

이렇게 편리함에 젖어 있던 내가 40대가 되어 세종시로 이직하게 되니까 지하철이 없어 ①새 직장에 늦지 않을까, ②오가는 차 때문에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③승차 중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진 건 당연했어. 헌데 괜한 걱정이었어. 세종시에는 ‘바로타’가 있다네. 간선급행버스이거든.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B0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해당한다네. 2호선이 한강을 가운데 놓고 순환하잖아. 마찬가지로야. 금강을 중심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순환한다네. 내가 충남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세종시청에 가서 여권을 받을 수 있어. 가끔 심난할 때 30분 동안 멍하니 세종시를 한바퀴 돌아보며 기분을 추스릴 수 있지.

‘바로타’는 전용차로를 가지고 있어. 버스 전용차선을 넘어 간선급행버스만 오가는 차로가 있다는 말이야. 이 때문에 회사를 갈 때나 예술의 전당으로 연극을 보러 갈 때에도 ①정시에 도착할 수 있어. 다른 도시에도 쉽게 갈 수 있어. B1은 서울 지하철 1호선하고 비슷해. 경기도·인천을 잇는 것처럼 청주시와 대전시로 갈 수 있어. 고속철도를 타러 오송을 갈 때나, 성심당에 빵을 사러 갈 때도 계획했던 바로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지. B2·B4는 서울 지하철 3·4호선하고 비슷해. 분당선으로 환승하는 것처럼 대전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어. 모든 간선급행버스는 ‘정시성’을 갖고 있어 버스가 막혀 늦는다는 건 세종시에서는 통하지 않아.

서울 지하철처럼 세종시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에도 스크린도어가 도입되어 있어. '바로타'가 도착하고 기사님이 정류장 스크린도어를 열어 주어야 버스에 탈 수 있지. 장난기 많은 우리 아이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이 근처로 들어올 수 없으니 우리 가족은 ②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또한 말이야. 정류장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듯한 냉난방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위치정보 표시서비스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바로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평승하차 기능을 통해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정류장에서 버스로, 그리고 다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 안 했지? 요즘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어. '바로타'에서 와이파이가 되니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거든. 전기굴절버스가 도입되어 넓고 길어진 차체때문에 지하철과 유사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나의 건강증으로 충전하지 못한 나의 태블릿도 바로 전원을 연결하여 버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 한마디로 ③승차 중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네. 더해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타'를 이용할 수도 있어. 화석 연료가 덜 소모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탄소중립적이기도 하고, 비용이 절약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기도 한 거야.

세종시 '바로타'는 정시성, 안정성, 그리고 편리성은 서울 지하철과 비교해도 절대 뒤쳐지지 않아. 내가 세종시에서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 남은 60년 동안 어떤 편리함이 추가될까 기대되기도 하다네. 지금도 무인 간선급행버스가 시험 운영을 하고 있고, 작은 미술관에서 작가의 생각에 함께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말야. 불편함도 남아있기는 하다네. 아직은 다른 차량과 만나게 되는 교차로가 존재해서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거든. 그렇지만 말이야. 지하철과 비교해 보면 반정도 소요되는 건설기간과 1/10의 건설비용은 굉장한 거 같아. 다른 인프라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든. 우리가 누릴수 있는 복지가 많아질 수 있는 셈이지. 한번 놀러 오게나. 내가 말한 '바로타'를 함께 타보자구. 틀림없이 자네도 세종에 살고 싶어질거야.

이만 줄이겠네.

세종에서 보냄